

광산업 매출·고용 ↑ '세계 톱3' 눈앞

광주, 이젠 생산도시

(중) 주력산업 제2 성장기



광주시에 3대 주력산업인 광산업과 자동차산업, 정보기전산업이 민선5기를 맞아 제2의 성장기를 맞이하고 있다. 사진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로봇청소기 제조라인.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산업과 자동차산업, 가전산업 등 광주지역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주력산업들이 민선5기 들어 제2의 성장기를 맞고 있다. 2015년까지 세계 TOP3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광산업은 매출과 고용이 급증하면서 지역산업 육성사업 중 가장 성공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자동차산업 역시 연산 50만대 체제로 돌입한 기아자동차와 함께 클린자동차 부품산업이 최근 새롭게 육성되면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융합신산업으로 일자리 창출의 보고인 정보기전산업은 연평균 12% 이상의 고속 성장 가도를 질주하고 있으며 가전로봇산업도 특화육성 2단계 사업이 진행되면서 본궤도에 접어들고 있다.

▲광산업
지난 1999년 지역산업 육성 차원에서 시작된 광산업은 고용과 매출액 등에서 지역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광주 광산업의 매출액은 1999년 1100억원에서 2010년에는 2조 5000억원으로 폭등했으며, 2011년말에는 3조 5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용인원 역시 1999년 1900명이었던 것이 2010년에는 8004명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말에는 82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련 기업도 사업이 시작된 1999년 47개사에서 2010년 360개사로 크게 늘었으며 2011년에는 370개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광산업계의 누적 매출액은 9조5145억원으로, 같은 기간 동안 투입된 국비와 지방비 등 총 사업비 5691억원의 16배를 웃돌고 있다.

광주시는 광산업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LED조명실증단지 구축, LED융합산업 허브기반 조성, LED조명 시범도시 조성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 마케팅을 통한 수출 확대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세계시장에서 광주지역 업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광통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친환경 광기반 융합 부품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300억원을 들여 차세대 광통신 모듈 생산기반 지원확대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차산업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지난해 말 연산 50만대 체제로 전환하면서 명실상부한 지역 핵심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광주공장의 생산대수는 지난 2009년 32만3000대에서 2010년 41만3000대

로 늘었으며 올해 말에는 48만3000대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매출액도 2009년 5조 5058억원에서 2010년 6조9000억원으로 늘었으며, 고용인원도 꾸준히 6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기아차 연산 50만대 매출 급증

클린자동차 부품산업 육성도

정보기전 연 12%이상 급성장

가전로봇산업도 본궤도 올라

다. 특히 생산체계가 다차종 소량생산에서 소차종 대량생산 체제로 전환되고 고부가가치의 승용SUV생산공장으로 재편되면서 생산량과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을 발판삼아 광주를 자동차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5년까지 1871억원을 투입,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 2012년까지 자동차 전장·기능부품 시스템사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자동차 금형 및 전장 모듈 기술개발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엔 자동차부품연구원 유치하고, 6월엔 광주그린카부품진흥재단도 설립했다. 이와 함

께 최근 조성사업이 시작된 진곡산업단지에 자동차부품 전용단지를 구축하고, 현대와 기아 등 완성차 업체의 연구소 분원을 유치하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정보기전산업
U-헬스산업으로 대표되는 정보기전산업 분야에는 자동심장제세동기(Aed) 생산업체인 (주)나눔테크와 면상발열체 등 신소재 제조업체인 (주)명신나노메디컬 등 28개 업체가 491명의 고용을 창출하며 347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광주시는 전자부품연구원의 메디컬IT융합 연구센터와 광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을 통해 차세대 융복합 의료기기 기술 및 질병진단 바이오센서 기술 등을 개발, 전국 최대 생활가전 집적 인프라를 구축된 광주를 중심으로 U-헬스산업을 특화·육성함으로써 신성장 동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기존 생활가전 산업에 가전로봇산업을 접목하기 위해 광주테크노파크에 가전로봇센터를 구축,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등 광주를 글로벌 명품 가전산업 도시로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재 광주에는 로봇과 관련된 11개 업체가 254명을 고용하고 917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8월 '2011국제로봇올림픽아드 한국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2012년 국제로봇올림픽아드 세계대회'를 유치했으며, 내년부터 2016년까지 242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전로봇특화산업 육성 2단계 사업'을 추진키로 하는 등 가전로봇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말레이에 투자하세요”

광주상의 투자설명회

광주상공회의소는 8일 광주 라마다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한-아세안센터,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과 공동으로 '2011 말레이시아 투자설명회'를 열었다. <사진> 이날 행사에는 다토 노하루딘 노르딘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장과 조영재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김오영 말레이시아 한국상공회의소 회장,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말레이시아의 투자정책과 기회, 태양광·신재생에너지 등 그린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유망산업 투자분야 발표를 듣고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기업 대표로부터 말레이시아 현지 비즈니스 경험을 공유했다. 또 참가자들이 구체적인 투자 여건을 파악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스 상담을 진행했다.

전영복 광주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세계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말레이시아 경제는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풍부한 천연자원과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해 성장 잠재력이 크다”며 “광주의 첨단산업과 협력해 서로 발전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투자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글로벌 청년봉사단 모집

한국거래소 국민행복재단

한국거래소(KRX) 국민행복재단은 8일 해외사업 대상국인 캄보디아 봉사활동에 참여할 글로벌 청년봉사단을 9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예정 인원은 30명 안팎으로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대학생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봉사단은 다음달 초 선발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 홈페이지(www.kfhi.or.kr/krxvolunte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겨울장갑 장만하세요” (주)광주신세계 시몬매장에서는 메트로시티, 닥스, 루이까뜨스에서 알뜰달룩한 겨울장갑을 선보여 고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판매가격은 5만9000원부터 12만원.

<광주신세계 제공>

배추 수출 인센티브 지원

aT 광주·전남지사

김장배추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배추재배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aT(농수산물유통공사) 광주·전남지사(지사장 이종경)가 수출되는 배추에 인센티브를 지원, 수급안정을 모색한다.

aT 광주·전남지사는 “가을배추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신선배추를 수출

할 경우 kg당 40원의 수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선적일 기준 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출물량 중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을 초과한 물량이며, 배추를 수출하는 업체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생산자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업체의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총 1억원이며, 지원신청 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1월 13일까지이다.

지원받고자 하는 희망자는 지원신청서와 수출실적증빙(수출신고필증, B/L), 수출품 국산원료 공급확인서를 광주·전남지사 수출유통팀에 제출하면 된다.

이종경 지사장은 “이번 수출 인센티브 지원은 수출을 통한 시장격리로 가을배추의 수급을 안정시키려는 정부 방안의 하나”라며 “수출이 활성화될 경우 주산지인 전남지역의 배추농가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소득세 중간예납 30일까지

광주 5만9000명에 안내문

국세청은 광주지역 5만9000명 등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96만명에게 올 상반기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에서 제외된다.

중간예납세액은 세액이 1000만~2000만원인 경우 1000만원 초과 금액, 세액이 2000만원 초과일 때는 50% 이하의 금액을 별도의 신청없이 내년 1월말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중간예납추계액과 중간예납세액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소득세 중간예납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하거나,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코스피지수	1903.14 (-15.96)
코스닥지수	507.11 (-2.66)
금리 (국고채 3년)	3.39% (-0.02)
원·달러 환율	1121.00원 (+4.10)
※추는 전일 증가 기준	

기능성 반사캡 “돈잡는 반디” 선풍적 인기

밝기는 2배!! ★ 전기료는 절감!! ★ 눈부심 방지로 확실한 시력보호!!

기능성 반사캡 "돈 잡는 반디"의 대표적인 특징

1. 쉬운 설치, 저렴한 설치비용
2. 가시광선의 전영역을 반사(조명의 질적향상)
3. 최대 50~100%의 조도향상
4. 전기요금 최대 50%절감
5. 눈부심 차단효과로 시력보호기능
6. 자외선 차단효과로 피부노화방지
7. 친환경제품(PP,PET소재로 100% 재활용 가능)
8. 변색이나 오염이 없는 반영구적인 제품

광주,전남 시/군/구

대리점/취급점 목록

(주)우림네트웍스

1599-9093

www.donbandi.net

형광등용

다용도용

삼파장용

에코반사캡

DIY세트